

정리노트

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출제 경향

-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각각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르게 표기하기 위한 것과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규칙이라 할 수 있음
- 외래어는 국어의 범위에 포함되고,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를 바르게 표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적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국어 규칙에 맞게 적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전제로 함
- KBS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다양한 일상 어휘나 지명, 인명 표기에 대하여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바르게 표기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이 주로 출제됨
-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규정한 것으로, 국어 단어의 글자대로 전사하는 전자법과, 국어 단어의 발음대로 전사하는 전음법의 두 원리가 있음. 현 규정은 전음법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
- KBS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등 고유 명사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음

정리노트

표준발음 출제 경향

1) 표준발음 개요

- 국어 단어를 규범에 맞게 바르게 발음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영역
- ‘표준 발음법’은 서로 발음하는 법이 달라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고 국어의 표준 발음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, 1988년에 제정한 표준어 규정 제2부에 해당함
- 표준 발음법은 ‘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,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’ (표준 발음법)고 밝히고 있음

2) 자음과 모음의 발음

- 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관한 규정 중 기억해야 할 부분은 주로 모음과 관련된 것
 - (1) 국어 모음 중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것: ㅏ, ㅑ, ㅓ, ㅕ, ㅗ, ㅛ, ㅜ, ㅠ, ㅡ, ㅣ
(예외: ‘ㄱ, ㅋ’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음)
 - (2) 이중모음 ‘ㅓ’의 발음: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ㅓ’는 [ㅣ]로 발음 (닐리리).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ㅣ]로, 조사 ‘의’는 [네]로 발음함도 허용

정리노트

음의 길이 출제 경향

- 음의 길이는 소리의 장단을 말하는 것
- 장음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합성어인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긴소리로 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함
- 소리의 길이에 관한 문항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